

‘당무 장악’ 나선尹... ‘선거 전문가’ 김종인에 전권 넘기나

윤석열-이준석 긴급회동 가져
사무총장 한기호-권성동 교체 검토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영입 ‘관심’
김기현 “이번주 선대위 발족할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입당 4개월 만에 당무 장악에 나서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게 전권을 주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의힘 당헌상 당무우선권을 갖고 빠르게 당무를 장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며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1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선대위 인선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당의 자금과 조직을 관리하는 사무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 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을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에서 윤 후보의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이 유력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윤 후보는 16일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 회담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선대위 구성에 대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서두

르지 않고 있다”며 “당 중심 선대위 체제가 되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당 바깥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을 더 많이 영입하고 도움을 많이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 인선 문제에 대해 “의결 사항이 아니고 협의 사항이고 수일 내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며 “큰 무리 없이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각종 인터뷰에서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해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전 위원장은 전권을 부여받은 선거에선 성과를 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이끌었다. 김 전 위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등 ‘선거 전문가’ 김 전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전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내가 (최종 선대위 구성안 등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윤 후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짚고 있는 것인지를 아직 나는 잘 모

르지만...”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에서 선대위 최종안에서 갖춰진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을 보고 자신의 합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김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윤 후보가 도와달라고 간접적으로 도움 요청을 하자 김 전 위원장은 “게기가 되면 도울 수도 있다”고 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요구하는 여건이 전권에 준하는 것일 텐데,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셔야 아마 움직이실 것이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안 가실분”이라며 “만약에 합류한다고 하면 윤석열 선대위에 천군만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직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권을 떠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저런 사람은 캠프 성격상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 정도는 내지 않겠냐”며 윤석열 후보와 잘 상의해서 결정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언론, 편파적... 기울어진 운동장에 유감”

이재명, 부인 낙상사고 루머 등 ‘가짜뉴스’ 대선 선거에 부정영향
“기울어진 운동장, 정상 만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연일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주장하며 대선 정국에서 언론환경이 치우쳐져 있다고 불편함을 표출함과 동시에 지지자들을 향해 SNS 등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언론 활동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의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최근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루머와 가짜뉴스 유포를 계기로 향후 대선 선거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 기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실연으로 종종 구설에 올랐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재미없다. 솔직히”를 비롯해 이보다 앞선 3일에는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에 대해 “제목이 확 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이 취재 현장에서 후보자 백브리핑을 안 하는 등 직접적인 언론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가 언론환경에 대한 불편함은 12일부터 사흘간 태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정을 통해 나타났다. 이 후보는 줄곧 지지자들을 향해 “언론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 잘못된 것이 없어도 잘못됐을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된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 다루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도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이라 누군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와 더불어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에서도 ‘여러분이 언론이 되어 주셔야 하는 이유’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 역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심각한 언론환경”이라며 “정말로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겨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선대위를 향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5일 중앙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대응책은 이야기한 바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목소리와 주장이 잘 반영되지 않고, 왜곡돼 전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보대응을 좀 더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 후보가) 말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정부조정실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계속 후보와 관련해서 ‘기울어진 운동장론’ 이야기하면서 언론 탓하냐’는 보도들도 좀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후보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게 마치 무슨 ‘좌표 찍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

다”고 설명했다. 강 조정실장은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데 실제로 언론이 한 부분만 따서 맥락을 읽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며 “언론 탓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절실한 것이고, 1인 SNS 미디어 시대에 각자가 참여해 국민들이 좀 바뀌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보통 잘 안 풀리면 여론조사 기관 탓, 언론 탓을 하게 된다. 차라리 분발하겠다고 하는 게 낫다”며 “어차피 중도층을 공략해야 하는 지점에서 탓하기 시작하면 유권자들은 패색이 짙어졌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있지만, 일부의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핵심 지지층은 다 결집한 상태”라며 “솔직히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것도 다른 후보들이 봤을 때 언론이 도와줘서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탓을 하기보다는 정책과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靑 박수현, 국민 ‘고통’ 수석인 것 같다”

국민의힘 김기현, 박수석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두고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고통수석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수석이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은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해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낮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지난 5년간 문 정권이 저지른 총체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수석이 ‘문비어천가’ 일색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고통수석인 것 같다”고 표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심기경호에만 여념없는 사람이 국민세금을 축내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박수석의 이와 같은 자화자찬은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전쟁이란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윤석열의 50조 손실보상은 뜯구름 공약”

윤호중, 김기현에 원내대표 회담 제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초과세수의 처리 방안을 놓고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이라는 뜯구름 잡는 공약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헛소리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추가세수 중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부터 실질적 논의를 하자”며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 지역 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위기대응 패키지에

산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흥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사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가 50조가 넘는데, 한해 50조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지난 7월 추경 당시 31.5조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추가세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박정익 기자